

## 슬럼프를 딛고 합격하기까지



백 송 화

- (서울)누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Prologue

안녕하세요.

벌써 변호사시험이 끝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1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호사시험에 대한 꿈을 종종 꾸곤 합니다. 주변 동기들도 그런다고 하니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시험이 끝났다고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은 3년이라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3년간 항상 평탄히 해낼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은 한두 번 정도 슬럼프를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커다란 슬럼프를 2번 겪고 중간중간 이유 없이 공부가 되지 않아 불안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교수님들과 동기들,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슬럼프를 겪고 계시거나 슬럼프 때문에 불안감이 드는 분들께 제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교양과목으로 법학 과목을 수강한 외에는 어떤 기초 지식도 없이 로스쿨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 동안 가족 같던 강아지의 투병 및 죽음과 오래 사귄 연인과의 이별로 인해 슬럼프를 겪으며 한동안은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슬럼프와 그로 인한 성적 부진이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공부 범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슬럼프로 인해 남들보다 뒤쳐진 간극을 메우려고 수험생 대부분이 ‘이 시기에는 반드시 이 과목만큼은 완성해야 한다’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각 과목 일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기보다는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러면 공부한 과목에 대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으나 그 외 과목이 소위 말하는 “뺑꾸가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사까지 뺑꾸가 없도록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I. 내신

검찰이나 로클릭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기에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내신은 당시의 제 실력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각 과목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신 준비를 위해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 곁핍기식 공부가 되어 사상누각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험 기간이라는 기회는 놓치지 가까운 기회이므로 지난 방학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한두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의 경우는 수업 내용을 빠

르게 복습하는 정도만 하였고 결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내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신이 높으면 좋고, 내시 대비가 곧 변사 대비이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변사 합격이므로 변사 합격에 방해가 되겠다 싶으면 부담을 줄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내신까지 챙겨가며 공부하기엔 부족하겠다 싶고, 변사 합격만을 목표로 한다면 내신성적으로 과목별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찾는 식으로만 활용하더라도 변사 직전까지 모든 부분이 보완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 II. 수험공부 방법

### 1. 총론

과목별 공부시간 단축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수업이나 학원 강의 등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강의만으로는 실력이 오르지 않고, 복습을 통해 시험지에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개념 이해도 어려운 편이지만, 시간 내에 적용된 개념이나 판례를 찾아서 써내야 하므로 복습을 통해 각 개념이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관련된 판례의 구조와 특이점을 이해, 암기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학교 연습강의와 학원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듣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정해서 풀게 되면 시험처

럼 긴장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실제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학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풀었던 문제를 복습하면서 개념과 판례를 공부하면 그냥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 2. 시기별 공부 방법

### (1) 1학년 시기

입학 직후부터 슬럼프를 겪다 1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기에 1학년 때는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수험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학기에는 법학에 흥미를 느낄 정도로 수업만 재밌게 듣기로 했습니다. 복습하지 않은 결과 성적이 민법 외에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수업이 흥미롭고 동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학교에는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느꼈던 것이 3년 내내 지치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수험생활을 할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공부가 힘들다면 학교나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요소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가 힘들어도 공부에 질리지 않게 할만한 외부 요인이 있다면 잘 지치지 않고 지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는 동기들과 행정심판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전부 대회 준비하는 데에 할애한 덕에 입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회

준비로 지난 학기 복습은 하지 못했고, 다음 학기 과목 일부만 인강을 들은 채로 방학이 끝났습니다.

2학기는 슬럼프가 너무 심해 자습은 고사하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성적표는 진지하게 학사경고를 받을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1학년 성적표를 보니 이러다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1학년 겨울방학에는 민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민법 공부만 하였습니다. 기본서 하나를 정하고 학원 수업 진도에 맞춰 예습 복습하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한 기본서에 단권화하여 변호사시험 때까지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이때 공부하면서 두 가지에 집중하였는데 첫 번째로 변호사 시험은 각 문제에 관련된 판례의 키워드를 써내는 것이 중요하다 느껴져 판례의 구조 파악과 판례 문구 암기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또 하나는 법학 개념이나 판례의 구조를 법조문과 연결해 공부하며 법조문에 익숙해지려고 하였습니다. 조문의 존재와 그 위치가 대강 알면 조문을 적용해서 써야 하는 문제에서 조문을 찾아 적용만 하면 되므로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조문에 익숙해지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2) 2학년 시기

2학년은 비대면 강의가 많아 자습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때 형법에 집중하되,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전체적인 실력

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완화 상대평가로 전환되어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나태해지기 쉽다고 생각하여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터디에는 민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고 수업 복습 이외 자습 시간에는 모두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스터디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매우 추천합니다. 특히 동기 중에 입학 전부터 알던 친구들이 있던 게 아니라면 정말 추천합니다. 스터디원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적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서로 정보나 수험 자료를 주고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충분할 정도의 수험 자료를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면 늘어지는 분들이라면 스터디 진도에 맞추기 위해 평소에도 공부하게 되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 검찰실무를 다녀왔습니다. 서면을 써서 검사님께 검사받고 재판을 방청한 후 검사님께 재판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형법공부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몇몇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형법총론의 기본개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형법의 기초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실무 덕에 형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때문에 생소하거나 어렵다 느껴지는 직역에서의 실무 수습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실무 수습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분야에서의 실무수습도 법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수습을 다녀온 후에는 2학년 2학기의 검찰실무와 형재실 등 형사법 과목 대비를 위해 형법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학기 검찰실무와 형재실을 푸는 감을 잡기 위해 방학 시작하자마자 짧게 형기록 강의와 특강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형법 기초를 다지기 위해 기본강의를 들었고 교수 저, 강사 저, 논문들을 참고하여 강의 내용으로는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고 형사소송법 증거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스터디에서도 형법에 집중하여 일주일에 형법 사례 형기록을 각 2회씩 풀었습니다. 스터디를 하며 배운 내용들은 기본서에 가필하여 단권화하였습니다.

방학 내내 형법에 집중한 만큼 이후로 형법 성적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학기가 되고부터 대면 강의도 병행하는 수업이 몇몇 있었습니다. 최대한 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형법 수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수업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따로 형법과 기록형 공부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시기에 형법을 완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후에는 공법에 집중하였습니다. 공법 내신이 나쁘지 않았으나 “실제로 전 범위를 번시에서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슬럼프를 겪으면서 6월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 (3) 3학년 시기

본격적으로 로스쿨 3생활이 시작되었음에도 선택형, 공사례, 공기록, 상법사례, 민기록, 선택과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민기록과 공기록은 처음 접하는 형식이라 생소하여 어떻게 풀어야할지 감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까지 가장 실력이 저조한 공법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공법은 늦게 시작한 만큼 중간보다 살짝 잘하는 정도가 되겠다는걸 목표로 잡고, 헌법은 암기장을 기본서로 하여 암기장 내용만 확실히 익히려 하였습니다. 행정법은 헌법보다는 기초가 잡혀 있었기에 중요 판례와 각 개념별 키워드, 자주 나오는 유형 등을 암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교 연습과목을 듣고, 수업 때 다른 판례와 개념들을 기본서에 추가하고 문제유형별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을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공기록은 다른 기록형에 비해 형식을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적고 써야 하는 내용도 공법 사례와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공사례 준비로 공기록 준비를 한 번에 하였습니다.

8월 모의고사는 잘하는 과목을 좀 더 보완하며 대비하였습니다. 형사례, 민사례는 중상위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었지만 다른 과목을 보완할 정도로 높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파트들 위주로 공부하여 상위권으로 성적을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집중하였는데, 소송법 과목들은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있고, 이 부분만 익혀두면 점수가 계단식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과목들입니다. 기

출문제를 풀며 자주 나오는 유형을 파악하고, 그 부분 기본서를 읽고 관련 판례를 공부하며 공부하였습니다.

그 외 남은 방학 동안에는 최신판례 강의를 듣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10월 모의고사는 최신판례와 선택형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3학년 되면 수험생 모두가 듣기 때문에 수험생분들도 분명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신판례를 듣는 데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들으시거나 듣다가 늘어지지 않도록 친구들과 함께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10모 전날까지 최신판례를 들었기에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한 과목들이 남아있었습니다. 6, 8, 10 모의고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메우고 시험을 본 적이 없다 보니 변시 후 가채점 결과가 좋은 편이었음에도 제가 변시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10월 모의고사까지 모든 부분을 보완한 후 시험을 본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 조금씩 불안해했기에 가능하다면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10모 전에는 보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9월 하순부터는 선택형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례형 공부를 통해 객관식도 대비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으로는 올릴 수 있는 점수의 한계가 있었고 선택형 점수에 따라 모의고사 석차가 크게 달라지는 걸 보고 선택형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여 별도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기출 3년, 모의 4년, 형법과 공법은 기출 5년

모의 4년을 풀고 틀린 내용과 애매한 내용을 엑스칼리버에 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터디원들과 주 3회 공법, 민법, 형법 기록형 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록형은 단기간에 올릴 수 없는 과목이기에 방학처럼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많이 써보면서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스터디는 실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0모가 끝나고 변시까지 3개월이 남았음에도 여전히 상법과 선택형, 선택법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법, 선택형과 멘탈관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선택법은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였고, 10모가 끝난 후 한 달간 매일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개요를 잡았습니다. 매우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고 조문을 잘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만 보면서 공부하였으므로 공부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상법이 출제되는 민사례 3문은 시간 안배 부족과 실력 및 자신감 부족으로 6, 8, 10모 모두 백지로 낼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께서 상법은 나오는 것들만 나오므로 여기서 점수를 못 내면 너무 아깝다고 말씀하셔서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와 학교 연습과목에서 다른 내용들만 공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상법 문제는 다 대충이나마 쓸 수 있었습지만, 이는 상법이 그만큼 쉬운 과목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법 내신 성적이 좋았던 덕에 이해와 암기하기가 수월했던 덕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변시직전에 진모를 듣는다는 건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땀꾸가 난 과목이 나오지 않게 미리 공부하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형은 변시 3일 전까지 캡슐에 체크한 것들 위주로 보았고 변시 3일 전부터는 제가 체크한 부분과 엑스칼리버에 HIT 표시된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멘탈관리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안하면 합격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 의지를 다졌습니다.

### Ⅲ. 변호사시험의 기간

쉬는 시간이 꽤 긴 편이지만 시험 30분 전부터는 책을 볼 수 없기에 실제로 공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최신판례 중 중요하다 표시한 것들만 읽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멘탈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5일간 치러지기 때문에 한번 멘탈이 나가면 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기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지나간 시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났으나 지난 과목은 어쩔 수 없으니 잘 봤을 거라 믿고 만약 못 봤더라도 다음 과목을 더 잘 봐서 만회하겠다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매일 억지로라도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불안감에 잠을 줄이려 시도하였는데, 저는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으면 다음 날 낮잠을 자게 되어 오히려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시에서는 5시간을 꼭 자려고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 잠을 못 자 컨디션이 저조하여 평소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

다. 때문에 미리 자기의 적정 수면시간을 파악 하셔서 변시 기간에도 이를 되도록 지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 IV. 마치면서

결국 변시 준비는 자기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실력, 잘 맞는 공부 방법, 평균 공부 시간과 수면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부 방법과 공부 계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를 반성하고 개선해나가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니 로스쿨 생활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지만, 로스쿨 생활이 어땠느냐고 되물어보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동기들, 교수님들이 좋고 공부 내용이 흥미로운 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당시에는 눈앞에 닥친 공부를 해내기 급급하여 정신없이 하다 보니 힘든 줄 모르기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책을 정리할 때야 비로소 공부량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대해 남은 기억은 틈틈이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갔던 일이나 재밌는 얘기를 했던 일 등 즐거운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합격 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저 방안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는 일은 없겠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준비한 만큼 다시 하라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만 되돌아보면 정말 뿌듯하고 찬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임에도 스트레스를 계속 조절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쓸쓸하면서도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값지다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힘든 나를 다독이며 목표치의 공부를 해내고 가끔은 힘든 것도 잊을 만큼 몰두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얻은 성취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서는 오롯이 자기의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는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변호사 시험을 겪은 분들이라면 모두에게 평생의 자부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동안 많이 힘들시겠지만, 그냥 묵묵히 눈앞의 공부를 해나가며 이 순간을 버티시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끝이 나고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완주했다는 뿌듯함을 오래도록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